



2026 연세대, 마지막 한마디

“졸지마라”

내가 너희를 가르쳤다

연상논술 김태규

원고지 사용법 링크 : [W 2026 연세대 논술 원고지사용법](#)

논술 입시 정보 공유방 : <https://open.kakao.com/o/gi8ryFh>

I. 문제를 푸는 태도

1. 원인-결과만 잡자

모든 제시문에 원인, 결과 관계가 나타나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인-결과가 나타났다면 그것은 아주 높은 확률로 ‘답안지에 적어야 하는 단어’입니다. 내 커리큘럼을 따라온 학생들이라면 아마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겠죠?

2. 모르겠으면 넘어가라

안 읽히는 문장, 단어를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무조건 넘어가세요. 내가 못 읽으면 남들도 못 읽는 문장입니다.

3. 시간분배는 전체 시험시간(120분)의 절반이다.

- 60분(전체 시험시간의 절반)간은 개요 작성에만 시간을 쏟으셔야 합니다.
- 아무리 글이 쉬워 보여도 60분은 고민하라는 말이고
- 아무리 글이 어려워도 60분이 넘어가면 일단 글 작성을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4. 60분 넘어갔으면 “닥치고 원고지 잡고 글 써라”

- 기억하세요, 60분이 넘어가면 그냥 시험지에 쓰셔야 합니다.
- (최소 50분, 최대 65분)

5. 수리 모르겠으면 2-1까지 일단 써라

수리논술에 배정된 시간을 대충 30분으로 가정하면 됩니다. 그럼 90분짜리 시험이므로 45분은 개요작성, 45분은 원고지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30분동안 수리논술을 쓰세요. 그리고 만약, 수리가 ‘너무 어려워서(2021-사회급)’ 못쓰겠다면, 최선을 다해 풀이과정이라도 적으세요. 그러고도 붙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6. 시간분배는 시키는대로 해라

60분(전체 시험시간의 절반)간은 개요 작성에만 시간을 쏟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글이 쉬워 보여도 60분은 고민하라는 말이고, 아무리 글이 어려워도 60분이 넘어가면 일단 글 작성을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60분이 넘어가면 그냥 시험지에 글을 쓰기 시작하는겁니다. (최소 50분, 최대 65분)

7. 개요작성에도 시간분배가 필요하다

- 60분이면 1-1에 10분, 1-2에 10, 2-1에 10분, 2-2 정답도출에 10분을 사용하세요
- 나는 $10 \times 4 = 60$ 이냐? 아니 그게 아니라
- 나머지 20분동안 1-1 ~ 2-2 개요를 유기적으로 엮어서 보충해야 합니다.
- 1-1에 10분 쓸 동안 보이지 않았던 지점들이 1-2, 2-1, 수리 풀면서 더 생깁니다.

8. 일단 분량부터 채워라

3번과도 일맥상통하는 논의입니다. 시간분배를 똑바로 해야, 600자 이상의 답안을 균일하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연대 시험은 다 맞으라고 내는 시험이 아닙니다. 좀 틀려도 됩니다. 아니, 많이 틀려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도 원인결과 노래를 불러대는걸 여러분들도 듣고 있었을테니, 아마 여러분들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는 소처럼 ‘어쩌다’ 우연히 정답을 맞춰낼 겁니다. 그러니까 울지 말고 분량부터 채우세요.

9. 아 이거 쓸까 말까 싶으면 써라

‘시험장’에서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출제자가 의도하지 않은, ‘우연한’ 정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리까리하면 그냥 일단 쓰세요. ‘명백한’ 헛소리가 아닌 한, 적어도 감점은 안당합니다.



II. 스뻤을 때 행동강령 : 그냥 존나 우기기 (적용형)

설명, 비판, 평가하기처럼 도구제시문에 있는 개념을 대상제시문에 ‘적용’하는 문제에서 감이 잘 안 잡히고 스뻤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땐 아래와 같이 행동하세요.

1. **도구제시문**에서 아무 원인-결과나 잡는다
2. **대상제시문**에서 그 원인-결과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때려박아본다
3. 대충 끼워맞추고 **여기 있는 게 이 개념**이라고 억지로 우긴다

[예시]

(다)는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일하는 노동자 임 씨의 사례를 소개한다. 가난한 임 씨는 식구들을 **부양**하기 위해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으로 가 옥상을 고치며 밤낮없이 일한다.

(가)의 관점에서 보면, **임 씨의 노동**은 **인간의 본질**을 실현하기 위한 개인의 **주체적, 의식적** 노력이다. (가)는 노동이야말로 인간의 본질이라고 주장한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노동**을 통해 자신을 의식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주체적인 존재라는 논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임 씨가 느끼는 노동의 만족감**은 **인간세계의 건설에 기여**하는 데에서 기인하며, 그의 노동은 자신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축복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나, (나)의 관점에서 보면, **임 씨의 노동**은 사회로부터 주입된 **원죄의식**의 발현에 불과하다. (나)는 노동에 대한 지나친 강박을 극복하고 여가를 즐겨야 한다고 본다. **풍요의 시대**에 과도한 노동은 **‘자신을 팔아넘기는 행위’**이고, 노동의 만족감은 단지 원죄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지나치리만큼 꼼꼼한 임 씨의 노동**은 생계를 위한 가장의 **죄의식**에서 비롯된 것이고, 오히려 임 씨는 적절한 **여가**를 누릴 때 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III. 스됐을 때 행동강령 : 딱 두개만 잡고 넘어가라 (도표)

‘도표해석’은 연세대학교가 제일 어렵게 잘 내는 문제유형입니다. 만약, 도표가 어렵다면(2025, 2022 참고) 그건 아마 여러분이 풀 수준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디테일한 분석은 포기하고 ‘딱 두개만’ 잡으세요.

1. “대체로 일치”하는 부분
2. “부분적으로 불일치”하는 부분

[예시 : 2021 연세대 사회계열]

이를 바탕으로 보면, ① (라)의 주장은 노동과 여가의 조화를 강조했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② 그러나 ‘적절한’ 균형점을 1:1로 전제한 것은 잉여물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다. (라)는 초콜릿을 축적하는 것을 ‘분별없는 축적’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잉여소득이 지나치게 적으면 B국처럼 삶의 질이 급격히 낮아진다. ③ 또한, 노동 자체가 가져다주는 만족감을 간과한 것이다. (라)는 피실험자들의 노동을 ‘unthinkingly’라고 깎아내린다. 그러나 피실험자들에게 실험의 목적이 오직 자신의 ‘행복’임을 사전에 고지했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 잉여물을 만들어내는 ‘노동’ 그 자체가 행복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Comment1. 제가 실전에서 이 문제를 마주했다면, 쟁점을 두 개 발견한 순간 바로 다음 문제로 넘겼을 겁니다. ① 대체로 일치하는 부분(300자) + ② 대체로 불일치하는 부분(300자)를 각 300자씩 쓰겠다고 개요작성해놓은 후, 바로 2-2번 수리논술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Comment2. 개요작성시간(60분)이 지나기 전에 수리를 다 끝냈으면 여기로 돌아와서 몇 가지 더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항 세트(2021 연세대 사회계열)에서 2-2번 수리논술은 역대 최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문제였습니다. 절대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Comment3. 적절히 ③번 쟁점을 포기하고 넘어갔다면, 저는 2-1번에서 66.666점을 받고, 2-2번에서 80점정도를 쟁겨서 대충 73점으로 합격했을 것입니다.

Comment4. ③번 쟁점을 찾아내려고 끝까지 아등바등 했다면, 66.666점과 0점의 환상의 콜라보로 33.333점이 나와서 당연히 떨어졌겠지요.



IV. 기타 공지사항

1. 챙겨가야 할 것

가. 샤프, 지우개, 수험용 아날로그 시계, 볼펜(검은색), 김싸

나. 신분증, 신분증, 신분증, 신분증

다. 수험표, 수험표, 수험표, 수험표

라. 샤프 하나 더, 지우개는 두개 더 챙기기, 샤프심 꼭 챙기기 (여분)

마. 볼펜 하나 더 챙기기

바. 귀마개(3M) 강력추천(생각보다 시끄러움)

사. 왕후드집업 추천(다리떠는놈들 안보기 꿀템)

- 왕후드집업의 경우, 감독관 재량으로 금지할 수 있으나, 최대한 불쌍하게, 불안증환자인것마냥 어필해서 허락을 얻어내는 것을 추천함.

아. 예시답안 (2024인문, 2025인문, 2022인문)

2. 시험장 위치 확인할 것

- 교육과학관, 대우관 등이 걸렸다면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일찍 도착하자.

- 겁나 멀다

- 경영관도 '생각보다' 멀다

- 중앙도서관정도면 무난하다.

3. 기준제시문과 대상제시문 방향을 헷갈리지 말자. (가)를 바탕으로 (나)를 평가해야되는데, (나)를 바탕으로 (가)를 평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주의하자.

4. 제시문번호를 헷갈리지 말자. 그리고 이건 작성을 마치고나서 반드시 더블체크해야한다. 제시문 (다)를 (나)로 잘못 쓰는 경우엔 진짜 억장 무너진다.

5. 웬만하면 샤프 쓰자. 볼펜은 참 귀찮다.

6. 내 예시답안 챙겨가라.



7. 글자수 개꿈수

논술에서 중앙대처럼 글자수를 엄격하게 맞춰야하는 경우에 꿀팁입니다.

특히 두번째 팁을 참고하세요.

세 부 개 요																																								
비선택적 문에 9 한 결과로 보정하기 위해 약과를 중 는 복귀 체계가 필요하다. <u>은은</u> ————— ————— ————— —————. [모든] 사람은 신체적·사회적 조건이 다르게 태어난다. 그래서 이 짝이 지 짝이. 끝.																																								
→ 420자																																								

1. 띄어쓰기 부호 활용

→ 가끔 첫줄이나 중간을 지우고 다시 써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땐 글자수가 잘 안맞는데 이때 띄어쓰기 부호를 활용하면 칸 안에 욱여넣을 수 있습니다. 원고지의 첫줄을 참고하세요.

2. 줄바꿈 기호 악용

→ 논술채점은 스캔방식으로 글자수를 세지 않습니다. 그냥 원고지에 '여기까지가 420자임'하고 써있으면, 거기로 부터 몇 칸을 씻는지로 채점됩니다. 420자까지 줄에서 5칸이 비워져있으면 415자로 채점됩니다. 이걸 악용하면, 위 사진에서처럼 줄바꿈기호를 통해 글자수를 억지로 맞출 수 있습니다.

물론, 중대에서는 줄바꿈을 안해도 되긴 합니다. 중대는 단락구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3. '제시문' 세글자 활용

중간정도 쓰다가 넘칠 것 같으면 '제시문 (가)'라고 쓸 것을 (가) 라고만 쓰시면 글자수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하시면 글자수가 줄어들겠죠?

활용하세요